

2020년 11월 2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사무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11월 24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경남 사천(사천만), 전북 정읍(동진강), 경기 용인(청미천), 충남 아산(삼교호)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,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인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경남 사천(사천만)과 전북 정읍(동진강), 경기 용인(청미천), 충남 아산(삼교호)에서 채취(사천-11.16., 정읍-11.17, 용인-11.18, 아산-11.17)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,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로 최종 확인(11.23.)되었다고 밝혔다.
- 또한, 전남 순천(순천만)에서 채취(11.17)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, 정밀검사 결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분리되지 않았다.
-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,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,

-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.
 - 그물망, 울타리, 전실 등 방역시설에 대한 꼼꼼한 정비
 -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
 -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
 - 매일 축사 내·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
 - 축사별 장화(신발) 갈아신기
 -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